

아버지됨(Fathering) 경험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의미 탐색

The Impact on Adult Men's Development through Fathering Experiences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황정해*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Hwang, Jung-Hae.

<Abstract>

Using interviewing methods, this study was able to identify how fathering impacted the development of adult fathers between the ages of 28 and 45 through 1 to 2 hours. The subjects were 46 middle-class adult men's from the ages of 28 and 45. Twenty of the subjects had infants under the age of 36 months, thirteen had preschool children, 37 months to preschool, and the remaining fathers had primary school aged childre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athering experiences impacted the development of self-identify, sense of intimacy, and sense of generativity during adulthood. Second, fathering experiences impacted the men's establishment of 'becoming-themselves.' Last, fathering experiences impacted the development of men's maturity.

▲주요어(Key Words) : 아버지됨 경험(fathering experience), 성인기 발달(adulthood development), 성숙(maturity)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Erikson's psychological development theory), 레빈슨의 성인기 발달 이론(Levinson's adult development theory).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기혼 취업 여성의 증가와 남녀간의 성평등 의식의 확산으로 인해 가정에서 남성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제 남성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볼 때 남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버지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이 남성의 성인기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남성의 직업역할 못지 않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그들 삶에 대한 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직업역할로부터 좋지 않은 경험들을 아버지 역할이 완충해 준다는 연구결과(Barnett, R.C., Marshall, N.L., Pleck, J. H., 1992; Greenberger & O'Neil, 1993)들을 통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인들은 인생의 절대적 의미를 일이나 업적보다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만족감이나 기쁨에서 찾으려는 경우가 늘고 있고 남성들도 자신의 인생에서의 행복과 목표를 직업에서가 아니라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와 가족생활에서 찾으려고 하는 가족 지향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남성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살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데 아버지 스스로도 아버지로서 가부장적인 권위만을 가지는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다정하고 친구같은 표현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모습을 이상적인 아버지

* 주 저 자 : 황정해 (E-mail : junghaeh@yahoo.co.kr)

상이라고(한경혜, 1997; 황정해, 2003)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아버지 역할을 하는 당사자인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아버지 경험'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함인희, 1997) 즉,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남성 자신의 정체감과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행해진 연구들은 대부분이 남성들이 아버지가 되는 부모기 전이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만족감 등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전이과정에서 경험하는 보상과 대가라는 측면이 조사되었다(송지은, 1994; 한경혜·이정화, 1995; 이순희, 2004). 이러한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남성이 부모기로서의 전이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 기쁨, 만족감 등은 보상이 되며,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은 대가의 측면으로 확인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아버지 역할로 인한 만족감과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연구(김희숙, 1996; 김기현, 1998; 서혜영, 1999; 조선화, 1998)가 진행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직업 역할과 아버지 역할의 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갈등과 관련된 연구(김소영, 2000; 이숙현, 1995, 1996, 1997; 서정아, 1998; 장미나, 1994)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남성이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는 과정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 남성의 아버지됨이 자녀나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할이고 그로 인해 남성들도 역할 갈등에 놓이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관점에서는 합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남성 자신의 성인기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의미가 있는지 탐색해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이는 이미 에릭슨(Erikson)이나 레빈슨(Levinson)과 같은 발달심리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인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사건임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이 부모가 됨으로써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거나, 발달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었다. 다만 여성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성인기 여성의 개인적 발달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지 밝히려는 연구는 몇 편 이루어졌다(노영주, 1996; 노영주, 1998; 손승아, 2000).

발달 심리학자인 엘렌 갈린스키(Ellen Galinsk)는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란 문헌을 통해 남성도 아내의 임신기부터 시작하여 자녀의 성장 발달에 따라 부모로서 성장해 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

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버지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부모기를 한 성인의 발달 과정으로 보고 그 단계를 탐색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아버지들 역시 아버지됨 경험을 통하여 성인기 이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성경험을 조사해 본 바 남성은 아버지됨 경험을 통하여 심리적 변화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등을 겪는다는 것을(황정해·이정덕, 2000; 황정해, 2003; 황정해·백경임, 2004, 2005)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과연 남성에게 아버지됨은 그들의 성인으로서의 발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규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아버지됨 경험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특성을 조사해보고, 인간 발달에서 중요한 특성인 자아정체감, 친밀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모됨 경험이 성인 발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과 인생을 변화하는 자연의 사계절로 비유하면서 성인기의 삶을 결혼, 직업, 가족관계, 여가 등의 사건들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는 레빈슨(Levinson)의 발달이론을 근거로 하여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됨의 의미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법의 하나인 심층적인 질적 면접법(in-depth qualitative interviewing)을 이용하였다.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숙독하여 유사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처음부터 구조화된 분석틀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응답에 준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됨 경험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세 단계로 실시되었는데 첫 단계에서는 래포를 형성하기 위하여 날씨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서두로 하여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그들의 현재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실제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특성들을 질문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이들이 응답한 내용들을 일차로 분석한 뒤 보충하여야 할 내용들을 2차로 조사하였다.

응답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경로는 친구, 친척, 이웃의

소개, 놀이공원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아버지들과 그들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서울, 경기도(과천, 평촌), 경남(마산, 창원), 경북(경주)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이었다. 조사시기는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 까지이다. 응답자와의 만남은 공원, 찻집, 응답자의 집, 직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허락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여 인터뷰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나이는 만 나이로 제시하였고 자녀의 나이는 대화중의 자녀 연령과의 일치를 위하여 생활연령으로 제시하였다.

2. 조사대상

영아기에 해당하는 0세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아버지는 모두 20명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는 25세에서 30세까지가 5명, 31세에서 35세까지가 13명, 36세에서 40세까지가 2명이었다. 학력은 모두 대졸이었으며, 직업은 회사원 16명, 공무원 2명, 개인업 1명, 엔지니어

1명이었다. 아내의 경우는 4명은 취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업주부였다. 유아기에 해당하는 36개월에서 취학전 자녀를 둔 아버지는 모두 13명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는 25세에서 30세까지가 1명, 31세에서 35세까지가 4명, 36에서 40세까지가 6명, 41세에서 45세까지가 2명이었다. 학력은 모두 대졸이었으며, 직업은 회사원 9명, 공무원 1명, 개인업이 3명이었다. 아내의 경우는 2명이 취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업주부였다. 아동기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는 모두 13명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는 35세에서 40세까지가 6명, 41세에서 45세까지가 7명이었다. 학력은 고졸 1명, 나머지는 대졸이었으며, 직업은 회사원 7명, 공무원 3명, 개인사업 2명, 은행원 1명이었다. 아내의 경우 3명은 취업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업주부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조사된 응답자는 전체 46명이었다.

<표 1> 0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사례	아버지 직업	학력	자녀	아내 직업
1	29세, 회사원	대졸	3세 딸	회사원
2	31세, 회사원	대졸	3세 딸 / 6개월 아들	전업주부
3	29세, 아버지사업 함께 함	대졸	2세 6개월 아들	전업주부
4	28세, 회사원	대졸	1세 딸	전업주부
5	39세, 회사원	대졸	3세 딸	회사원
6	34세, 회사원	대졸	3세 아들, 1세 딸	전업주부
7	32세, 회사원	대졸	3세 아들	전업주부
8	32세, 엔지니어	대졸	2세 아들	회사원
9	39세, 회사원	대졸	3세 딸, 임신 6개월	전업주부
10	31세, 회사원	대졸	3세 딸, 2세 아들	전업주부
11	33세, 회사원	대졸	3세 아들	전업주부
12	34세, 공무원	대졸	1세 1개월 아들	전업주부
13	30세, 회사원	대졸	3세 아들	전업주부
14	29세, 공무원	대졸	3세 아들, 임신 5개월	전업주부
15	34세, 회사원	대졸	3세 아들, 1세 딸	전업주부
16	33세, 회사원	대졸	3세 아들	전업주부
17	32세, 회사원	대졸	2세 4개월 딸	회사원
18	33세, 회사원	대졸	3세 딸	전업주부
19	34세, 회사원	대졸	3세 딸	전업주부
20	28세, 회사원	대졸	3세 아들, 2세 딸	전업주부

<표 2> 36개월에서 취학전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사례	아버지 직업	학력	자녀	아내 직업
1	29세, 회사원	대졸	6세 딸, 임신 9개월	전업주부
2	39세, 개인사업	대졸	6세 아들, 4세 아들	전업주부
3	34세, 회사원	대졸	6세 아들, 3세 아들	전업주부
4	35세, 회사원	대졸	6세 아들, 3세 딸	전업주부
5	41세, 개인사업	대졸	5세 딸, 3세 아들	전업주부
6	36세, 공무원	대졸	6세 딸, 2세 아들	전업주부
7	33세, 회사원	대졸	5세 딸	회사원
8	37세, 회사원	대졸	6세 아들, 2세 딸	전업주부
9	41세, 회사원	대졸	6세 딸, 5세 딸	전업주부
10	39세, 회사원	대졸	5세 아들	회사원
11	35세, 택시기사	대졸	4세 아들, 2세 아들 1세 아들	전업주부
12	40세, 회사원	대졸	5세 아들	전업주부
13	40세, 회사원	대졸	6세 아들, 2세 아들	전업주부

<표 3>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사례	아버지 직업	학력	자녀	아내 직업
1	42세, 사업	고졸	초등 2학년 딸, 3살 아들	전업주부
2	45세, 회사원	대졸	초등 3학년 아들, 7살 딸	전업주부
3	41세, 비디오가게 운영	대졸	초등 2학년 아들, 6살 아들	함께 가게 운영
4	43세, 회사원	대졸	초등 2학년 아들	전업주부
5	39세, 회사원	대졸	초등 3학년 아들, 7살 딸	전업주부
6	35세, 회사원	대졸	초등 2학년 딸, 6살 아들	전업주부
7	40세, 회사원	대졸	초등 4학년 아들, 3살 딸	전업주부
8	43세, 회사원	대졸	초등 2학년 딸, 7살 아들	회사원
9	37세, 경찰	대졸	초등 1학년 아들	회사원
10	42세, 회사원	대졸	초등 4학년 아들	전업주부
11	40세, 사무원	대졸	초등 2학년 아들, 4살 딸	전업주부
12	38세, 은행원	대졸	초등 3학년 딸, 5살 딸	전업주부
13	45세, 교직원	대졸	초등 4학년 아들	전업주부

III. 선행 연구

1.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에릭슨(Erikson, 1963)은 자아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이드의 이론을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확대하였다. 에릭슨은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며 적응적, 창조적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가정하여 점성원칙(epigenetic principle)에 지배되는 8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점성적 원리란 각 단계는 전 단계와 심리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통합을 토대로 하며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에릭슨은 성인초기와 중기에 획득해야 하는 발달 특성으로는 친밀감과 생산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성인기 이전 단계인 청년기의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성 확립의 개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아정체성(self - identity)은 자신과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과 이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자신에 관한 지각의 통합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둘째, 친밀감(intimacy)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다른 누군가의 아이덴티티를 융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는 타인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인간 상호간의 차이점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생산성(generativity)은 다음 세대를 돌보고 길러감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장하고자 하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측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교육하는 부모 역할 생산성(parental generativity)의 모습이나 혹은 자신의 직업에서 경험하는 과업 생산성(work generativity)으로 획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윤 진, 1989).

2. 레빈슨(Levinson)의 성인기 발달이론

레빈슨(Levinson, 1986)은 근로자, 기업가, 학자, 예술가로 종사하는 35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삶의 전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와 유명인의 자서전이나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의 생애를 분석한 결과를 통합하여 인생주기(season of life)모형을 제시하였다. 인생의 주기를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 사이에 세 번의 전환기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성인 이전 시기(22세까지), 성인 초기(17-45세), 성인 중기(45 - 60세), 성인후기(60세 이후)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전환기가 있다고 본다. 성인 이전과 성인 초기 사이는 성인

초기 전환기, 성인 초기와 중기 사이는 성인 중기 전환기, 성인 중기와 후기 사이는 성인 후기 전환기로 명명하고 5년간에 걸친 각각의 전환기 동안 이전 시기의 삶을 평가하고 통합하며 다음 시기를 설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 개인의 삶의 기본 양식은 인생구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인생구조란 '지금 내 삶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의문에 스스로 제시하는 대답들로 구성된다. 레빈슨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 결혼과 가족, 직업을 인생구조의 주요한 요인들로 보고 있다. 본 연구 대상의 연령대는 성인초기와 중기에 포함되므로 그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초기는 꿈을 갖고 평생의 과업을 찾으며 일생동안 지속할 애정관계를 이루고 스승을 구하는 시기이다. 꿈, 스승, 생애과업, 결혼의 네 가지 발달과업이 이루어내는 양상은 곧 성인 전기 성격발달이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성인전기 전환기는 약 17세에서 22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도기이며, 30세 전환기는 약 28세에서 33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성들은 지난 10여년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해 온 일들이 적합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가벼운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갖고 활력을 지니며 보다 안정된 성인전기 인생구조의 토대를 쌓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30세 전환기를 통해 성인전기의 안정된 구조가 확립되면 33 - 40세경 사이에는 직장, 가정, 사회활동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삶의 양식을 확립하고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절정 인생구조의 시기를 맞이한다. 레빈슨은 이 시기를 '자기 자신 되기'라고 칭하고 성인전기 인생구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하였다. 자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전 초보 인생구조에서 지녔던 꿈을 실현하거나 불가능한 부분을 버리는 것으로 정리하며 인생의 모델로 삼았던 사람을 버리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성인중기 발달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40세에서 45세 사이에 해당하는 인생중기 전환기에는 지난 날의 삶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약 80% 남성들은 인생중기 전환기 동안에 불안과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인생중기 전환기 위기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서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장할 때 극복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김애순, 1996).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적 관점

남성이 아버지됨(fathering)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개인 심리적인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첫째,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적 관점에서 성인 초기와 중기의 발달 특성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고 둘째, 자녀 발달단계별에 따른 아버지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셋째, 남성이 인식하는 아버지됨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나는 누구인가?'란 정체감이 확고해 진다.

남성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는 그 아이 위주로 생활시간들이 결정되고, 일상의 일들에서 우선 순위가 자녀가 되며, 자녀 중심으로 삶이 영위됨을 느끼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제 애 아버지란 생각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고 그 동안 내 문제에 너무 매달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례 11, 35세 유아기 아버지)

“전에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수월합니다. 아이가 우선입니다.” (사례 2, 39세 유아기 아버지)

“아이와 함께 지내기 위해 다른 스케줄을 줄이고 또한 이력에 손실이 오더라도 직장보다는 가정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15, 34세 영아기 아버지)

“아이가 나의 일상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례2, 39세 유아기 아버지)

2) 직업정체감이 발달한다.

남성은 아버지가 되고 나면 직업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돈과 일에 대한 생각이 가장 변화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체감이 확고해짐을 표현하였다. 자녀를 두기

전에는 남성에게 일은 자신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으나 아버지가 되고 나면 점차 자신의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는 생계수단의 의미가 더 강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고, 현재의 일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그 일 속에서 자신이 발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니 돈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 충실하게 됩니다.” (사례 9, 41세 유아기 아버지)

“가족을 위해 재정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려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소중해지고 애착이 갑니다.”(사례 10, 39세 유아기 아버지)

“남자의 일은 개인적인 것이다. 나의 성취욕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 내 성공이 곧 가족, 아이를 키울 바탕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 9, 41세 유아기 아버지)

“직장에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자연히 일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13, 45세 아동기 아버지)

“아무래도 가정을 가짐으로써 책임감이 강해졌고 회사에서도 자기일에 충실해지게 되고 돈 씹씀이도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가정일에 거의 신경을 써지 않았지만 나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란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나라의 일꾼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사회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난 아버지란 단어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사례 8, 43세 아동기 아버지)

“이젠 내가 하고 싶다고 다른 일에 뛰어들 수도 없고 하기 싫다고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이 곳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마음의 동요는 없습니다.” (사례 5, 39세 아동기 아버지)

3)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남성도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아이를 실제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성만이 여성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발견하는 계기로 받아들임을 보였다.

“아버지가 되니 남자로서 또 다른 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례 3, 29세 영아기 아버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나도 이제 남자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례 3, 34세 유아기 아버지)

“요즘은 불임도 많은데... 막상 아버지가 되니 ‘이젠 진짜 남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 12, 40세 유아기 아버지)

4) 가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남성들은 아버지가 되고 나면 아이와 자신 그리고 아내가 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다시 하게 된다. 이런 의식은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해 가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연대감을 통해 느끼기도 하고 또한 자녀로 인해 자신이 그 가정의 책임을 지야 한다는 책임감의 강화로서도 느끼게 된다.

“나와 평생을 살아갈 가족이 생겼고 그 만큼 책임감이 많이 생겼으며, 지금은 아내가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는 그저 안부 전화를 하는 사이들로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례 7, 32세 영아기 아버지)

“애가 생기니깐 아내와 둘만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뭐랄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고. 책임감도 더 강해집니다.” (사례 11, 33세 영아기 아버지)

“아내가 이제 애 엄마로 보입니다. 이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고 우린 이제 가족이란 감정이 강렬합니다.” (사례 16, 33세 영아기 아버지)

5) 자녀와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 경험으로 자신의 감정 이입 능력이 발달한다.

남성은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와 매우 강한 유대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친밀감 경험은 자신의 근원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고 그로 인해 타인과의 감정이입 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Kohurt(1980)의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발달에는 공생과 개별화 즉 타인과의 협력과 분리라는 두 가지의 특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장휘숙, 2000 재인용).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영역을 유지하는 자율성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유친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남성은 생활의 대부분이 보통 공적 관계로 이루어진 직업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에는 능숙하나 상대방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부족하기 쉽다(이숙현, 1996)는 관점이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 남성은 아버지됨 경험을 통해서 남성에게 부족한 유친성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아이와 느끼는 친밀감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친밀감은 다른 어느 누구와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런 느낌은 아내나 내 가족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웃음을 짓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례 1, 29세 영아기 아버지)

“자녀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미로운 일인지... 정말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아이를 쳐다보면 ‘저게 날 닮았나’... 하고 자꾸 보게 되고, 어쨌든 정말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사례 9, 39세, 영아기 아버지)

“나의 딸은 내 아내와 나의 인생에서 전부를 차지하고 그 아이로 인해 우린 더 가까워지고 밀착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는 우리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과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사례 18, 33세, 영아기 아버지)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깐... 다른 부모들 심정도 알겠고, ‘내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만큼 다른 아이들도 그 부모들한테 얼마나 소중한걸까요’. 아이들을 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군요.” (사례 17, 32세 영아기 아버지)

“아이가 생긴 뒤로 부모와 공통된 화제거리가 생겨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함께 있을때도 긴장감이 완화되고 똘이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줘 행복감을 줍니다. 또 부모에게 전화도 더 자주 걸게 됩니다.” (사례 20, 28세 영아기 아버지)

“애가 있으니깐 부모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

니다. '뒤 애가 윤희유 역할을 해 준다고나 할까요. 어쩌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도 더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례 19, 34세 영아기 아버지)

"자녀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미로운 일인지... 이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례 8, 32세 영아기 아버지)

6)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남성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인간관계가 원만해졌다고 말한다. 직장생활에서도 경직됨이 많이 풀어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아졌으며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화되어간다고 표현하였다.

"직장생활하는 것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젠 애들 이야기하면 같이 어울려서 나도 이야기를 하고... 편해졌습니다." (사례 4, 35세, 유아기 아버지)

"제가 좀 내성적이었는데 아버지가 된 뒤로는 사무실에서 우스개 소리도 하고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례 7, 32세 영아기 아버지)

"아이가 화제가 되어서 동년배 또래의 아버지들이나 이웃 사람들과도 쉽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정보도 얻게 되고 물론 즐겁기도 합니다." (사례 8, 37세 유아기 아버지)

7)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남성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증가한다. 비록 부모님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을 키우신 것 만으로도 존경하며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모에게 더욱 잘해 드려야한다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을 보인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해하게 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준 시간들이 부족했다고 느꼈는데 나도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늘 그러고 싶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 아아 아버지 당신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례 12, 40세 유아기 아버지)

"아이를 낳고 난 뒤 부모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모님도 날 키우시면서 이랬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례 2, 39세 유아기 아버지)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내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집니다." (사례 1, 42세 아동기 아버지)

"내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 부모님의 심정을 약간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식의 소중함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많은 것을 자제하면서 생활하다 보니 부모님도 늘 이런 마음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10, 39세 유아기 아버지)

8)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달한다.

남성은 자녀가 생김으로 해서 자신이 그 아이를 보호해 주고 돌보아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누구를 보살펴야 하는 감정은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들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실제적인 일상의 돌봄들 예를 들어 수유나 목욕시키기 등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기도 하고 또한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사회적 환경을 걱정하거나 사회적 편견들로 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으로도 발전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계산 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배풀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례 16, 33세 영아기 아버지)

"아이를 낳고 나니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 딸이 자랄 사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지...또 애들 교육문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례 9, 41세 유아기 아버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나에게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나를 희생하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례 13, 40세 유아기 아버지)

"애들이 혹시 불량식품을 먹지는 않는지 늘 걱정이 되고, 음식에 이상한 것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엄격히 다루어야 합니다. 애들이 먹을 음식에 장난하는 것은 정말 벌 받는 일입니다." (사례 1, 29세 유아기 아버지)

“아이가 생김으로써 이전에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차를 운전할때도 좀 더 안전에 유의하게 되고 아이를 교육시킬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가족의 안전을 예전 보다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례 19, 33세 영아기 아버지)

“내 아이가 생기니깐 환경문제나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고 나오는 다른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례 5, 41세 유아기 아버지)

“아이들이 자라서 받을 교육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교육제도도 일관성이 없고 세상도 험하고.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갈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깐 아이를 맡길 곳에 대한 결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례 5, 41세 유아기 아버지)

9) 사회적 관계망을 재 인식하고 확장해가며 자신의 관심영역이 확대된다.

남성은 아버지가 되고 나면 자신의 주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정립하며 이전에 관심이 없었던 사회, 교육적 문제들로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진다. 실제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가 되면서 겪게 되는 변화를 조사한 Cowan(1988)은 남성은 아버지가 되면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며 그동안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었던 이전의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보다 관심을 더 갖게 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였다.

“아이가 없을 때는 내 문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젠 주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젠 결혼 안한 친구들보다 결혼한 친구들이 편하고 직장에서도 주변에 아이들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0, 28세 영아기 아버지)

“피상적인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는 것이 애들한테 좋은 건지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사례 14, 29세 영아기 아버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죠.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나 환경문제, 애들이 자라서 살아갈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례 8, 32세 영아기 아버지)

“예전에 비해서 공공심,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살게 될 환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례 13, 40세 유아기 아버지)

10) 책임감이 강해지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성을 제공 받는다.

남성은 아버지가 되면서 자신이 정말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책임감이란 단어로 많이 표현되었는데 이젠 자신 혼자 몸이 아니며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키워나가야 하는 자식이 있으므로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자신의 삶에 원동력을 얻게 되고 다른 일에 대해서도 어른스럽게 대처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 아버지들은 아이를 책임지려는 의지는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더 해 주는 일이 된다고 표현한다.

“무엇보다도 일단 책임감이 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례 7, 32세 영아기 아버지)

“가장 큰 변화는 책임감입니다. 아이들은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있습니다. 난 그런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고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사례 7, 33세 유아기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됨으로서 내 주위에 모든 것이 의미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와는 달리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행동에도 무게가 실리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더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사례 2, 45세 아동기 아버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되었을 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란 책임은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삶의 의미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례 7, 40세 아동기 아버지)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삶이 진지해집니다.” (사례 9, 41세 유아기 아버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진다고 생각하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사례 9, 41세 유아기 아버지)

“나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을 임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사례 19, 34세 영아기 아버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 지는 걸 느낍니다. 가장 우선이 이 애들이 커서 제 구실을 할 때까지 내가 보살펴야 하니깐... 그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야죠.” (사례 11세, 40세 아동기 아버지)

“뉘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동아리에서 자꾸 화젯거리가 아이들로 옮겨가는 것을 처음에는 재미없어 했는데 이제는 나도 그 대열에 끼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이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고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제이자 축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일에 대한 보람도 느껴집니다.” (사례 5, 41세 유아기 아버지)

11) 자신의 아동기를 재 경험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남성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신의 유년기 시절 경험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간다.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자녀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보상을 얻게 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자녀에게 요구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됨을 보인다.

“어릴 때 집이 어려웠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는데 형편상 못했었습니다. 내 자식한테만은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면 유학까지 보내주려고 합니다.” (사례 4, 43세 아동기 아버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마음에 상처를 안 받고 자랄 수 있는 밝고 명량한 아

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마음에 구김살이 없는 아이로 자랐으면 합니다. 전 사실 어릴 때 친엄마가 아닌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물론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셨지만 마음속엔 늘 그늘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에게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례 9, 41세 유아기 아버지)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나이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나를 닮은 녀석이 커가는 것을 보면 기분이 묘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 기 안죽이고 키우고 싶고, 내가 못한 것을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례 8, 37세 유아기 아버지)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어요. 내 아이에게만은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해 주고 싶고, 무엇보다 그 점을 가장 조심합니다. 혹시 아내와 싸우고 나면 애가 놀라지는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내와 큰 소리 안내려고 합니다.” (사례 3, 41세 아동기 아버지)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나서 포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직한 꿈이었는데... 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지금은 공부도 제법 하고 해서 시켜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진 자기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 아버지로서 기쁘고 든든합니다.” (사례 10, 42세 아동기 아버지)

12) 자신감이 증진된다.

남성은 아버지로 적응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제에 심리적인 도전을 받지만 그 과정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자신감이 증진된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으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과정을 잘 극복하게 되면 아버지로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런 성취감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영역의 문제들도 해결해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증진됨을 보인다.

“아버지가 되어 살다보니 일을 처리할 때 좀 더 신속하고, 일에 대처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례 19, 34세 영아기 아버지)

“아이를 처음에 안을 때나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

야 할지 모를 때는 긴장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이를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느낌이 듭니다.” (사례 5, 39세 영아기 아버지)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매 순간이 적응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무슨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만 했으면 했는데 막상 아이가 말을 하고 나니 이전 애가 원하는 것을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조절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매번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를 잘 다루는 것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사례 9, 41세 유아기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절하고, 승진에 대한 마음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아버지가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조절해야 하는 경험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례 6, 36세 유아기 아버지)

“아이들 유치원 보내는 문제나 아이 교육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아이에게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 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워나가는 일이란 그때 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례 8, 43세 아동기 아버지)

13) 타인에 대해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진다.

남성은 자녀를 실제 돌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상에서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조절해야 하거나 자기중심적이기 보다는 자녀를 중심으로 하여 행동해야 하는 일들을 경험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대해지게 된다. 이는 허킨스와 동료들(Hawkins A. J., Christiansen, S. L., Sargent, K. P. & Hill, E. J. 1993)은 아버지들은 어머니와는 달리 자녀출생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달적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보다 자기중심적이고 도구적인 단계가 길며 이타적인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점차 자녀와의 관계에 적응해 가며 자녀양육과정에서 이타적인 감응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깐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 조절도 할 수 없고 아이에게 맞추어야 하고 예들들어 애랑 함께 어딜 나가도 그애가 하고 싶은대로 해 줘야 하고... 어쨌든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일이든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5, 34세 유아기 아버지)

“애를 키우다보니 참아야 할 일도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해도 애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혼자 일 때 보다 생각해야 할 여지가 많아집니다.” (사례 9, 41세 유아기 아버지)

“저녁에 애가 안자고 칭얼거리거나 집을 어지럽혀도 참아야 하고 쇼파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해도 크게 야단을 못칩니다.” (사례 6, 36세 유아기 아버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으면 아이들이 그걸 해 내지 못할 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다만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례 1, 42세 아동기 아버지)

“예전 같으면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이 뭘 잘못하면 ‘아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란 소리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는 여유가 생깁니다. 먼저 ‘이유가 있겠지’하는 마음도 들구요.” (사례 9, 41세 유아기 아버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참을성에 도전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가 칭얼대는 것도 달래야 하고 저녁에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많이 너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사례 20, 28세 영아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지금은 가려면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니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한 번 가려면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애들 챙겨야 하는 아내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혼자 일 때 보다는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참을성도 생기고, 아무래도 느긋해진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사례 3, 34세 유아기 아버지)

“애를 키우는 일은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난 돌이 둥글둥글해진다고나 할까요.” (사례 12, 40세 유아기 아버지)

14) 현실지각력이 발달한다.

남성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게 되고 보다 안정성을 추구한다.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 이는 가계를 부양해야 하는데서 오는 경제적인 책임감, 직업과 가정생활 중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갈등 등은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서 오는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조절해 가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된다.

“아버지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더 생기고 때론 하는 일에서도 가족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정을 신중히 하게 됩니다.” (사례 4, 43세 아동기 아버지)

“가족 부양 책임 때문에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생기고 나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사례 8, 37세 유아기 아버지)

“굉장히 현실적이 된 것 같습니다. 미혼 때 보다는 결혼하고 나서 세상사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생기니깐 더 합니다. 저 애는 전적으로 나에게 의지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례 17, 32세 영아기 아버지)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난 음악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대학 땀 보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없을땐 아내가 이해했는데 이젠 눈치도 보이고 나 스스로도 접을 것은 접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사례 3, 29세 영아기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좀 더 신중해 졌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출산 전에는 나의 입신양명과 더 자세히 말하면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이젠 모험보다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 된 것 같습니다.” (사례 5, 39세 영아기 아버지)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전체 1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감이 확고해짐, 직업정체감 발달,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 확인, 가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강화, 자녀와 강한 정서적 유대감 경험으로 자신의 감정이입능력 발달, 인간관계의 원만함,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고 수용함,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 발달, 사회적 관계망을 재 인식하고 확장해 가며 자신의 관심영역이 확대됨, 책임감이 강해지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성을 제공 받음, 자신의 아동기를 재 경험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 받음, 자신감 증진, 타인에 대해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짐, 현실지각력이 발달함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성들을 근거로 하여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릭슨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자아정체감 확립을,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으로 친밀감 발달을, 그리고 성인 중기의 발달과업으로 생산성 발달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은 28세에서 45세까지로 분포되어 있어 성인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단계이지만 분석 결과에서 보면 아버지됨의 경험이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정의된 자아정체감을 더욱 확립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버지됨 경험 속에서 아버지들은 ‘나는 누구인가?’란 정체감이 확고해지고, 현실지각력이 발달하고, 직업정체감이 발달하고, 가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아버지됨의 경험을 통해 남성은 성인전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자녀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자녀와의 관계맺음에서 감정이입 능력이 발달하고, 자신의 아내, 근원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까지 그러한 감정이입 능력이 적용된다. 그리고 아버지됨을 통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며, 타인을 너그럽게 봐 줄 수 있는 수용력과 이해력이 증진되며,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심리적 변화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인중기 발달과업인 생산성 발달은 자녀를 보고하고자 하는 심리가 생겨나고,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재 인식하고 확장해가며, 자신의 관심 영역이 확대되고, 책임감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성을 제공받고, 자신의 아동기를 재 경험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자신감이 증진되는 경험들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릭슨은 부모로서의 삶을 통해 성인증기에 요구되는 생산성 발달 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됨이 남성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친밀감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에릭슨이 말한 이전 단계의 긍정적인 발달이 다음 단계의 발달을 도와준다는 점성적 발달개념이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석결과는 Shawn(1997)의 연구에서 제시된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은 아버지의 자아정체성과 친밀감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과 일치하였다.

둘째, 자녀의 발달 단계별 아버지됨 경험을 통한 심리적 변화특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이 응답한 내용들은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 보다는 서로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나타난 심리적 특성을 보면, 영아기 아버지들만(28세에서 39세)이 응답한 내용들은 자녀와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 경험으로 자신의 감정입력 능력이 발달한다는 부분과, 가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는 영역이었다. 이는 자녀로 인해 남성은 가족의식이 강화된다고 연구결과(이숙현, 1990)와 일치하며, 또한 부모기로의 전이 시기인 영아기에 아버지는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과정을 겪고 이러한 초기 양육기의 참여는 남성의 성인기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다음으로 영유아기 아버지들이(28세에서 41세) 공통적으로 응답한 부분은 나는 누구인가?란 정체감이 확고해지며,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달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해가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영역이었다. 이는 이 시기의 아버지들의 연령은 에릭슨이 말한 성인초기와 중기 진입에 있는 시기이므로 자아정체감, 친밀감, 생산성등의 발달 특성이 획득되어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유아기와 아동기의 아버지들이(29세에서 45세) 응답한 부분은 직업정체감이 강화되고,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고, 자신의 아동기를 재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이 시기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나이로 아버지 자신도 아버지로서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시기로서 정체감 형성 중에서도 직업의식이 더욱 강화됨을 보이는데 이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책임의식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같은 맥락의 해석인 자녀연령에 따른 아버지됨의 경험 축적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님

과 자신의 아동기의 경험들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본인들도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통해 부모됨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아동기를 보상하려는 의식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기와 아동기의 모든 아버지들(28세에서 45세)이 공통적으로 응답한 영역은 현실지각력이 발달하고, 타인에 대해 관대해지고 너그러운 태도가 생기며,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이러한 책임감을 통해 본인 삶의 의미성을 제공받으며, 자신감이 증진된다는 부분이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결과로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감은 아버지됨의 일관된 특성이며 본인의 삶에도 의미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버지로서 현실적인 지각을 갖도록 요구하고, 실제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아동기까지는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참아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 가는 과정은 자녀 발달단계와 관련없이 각 단계마다 해결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므로 아버지들은 이러한 아버지됨 과정들을 잘 극복하게 되면 아버지로서 자신감이 증진되고 나아가 자신의 삶 전반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생각된다.

셋째, 아버지됨 경험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본 연구의 응답자 대부분은 아버지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상에서 자신의 개인적 욕구 보다는 자녀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문제나 가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문제 등 아버지로서 살아가는데 오는 부담감과 역할 갈등이 제시되긴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지각들은 그 자체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남성은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발달시키고,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지각력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남성이 아버지됨의 경험을 통해 느끼는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들도 그 과정을 극복해 감으로써 성숙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레빈슨(Levinson)의 성인기 발달이론적 관점

레빈슨의 성인기 발달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됨 경험은 남성의 성인기에서 인생 전환기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며, '자기자신 되기'라는 발달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 인생의 전환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촉진되는 시기는 안정기보다는 전환기이다. 여기서 전환기란 기존의 삶의 구조를 수정해서 새로운 구조를 준비하는 변화의 시기로 혼돈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김애순 1996). 전환기에는 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아버지됨은 남성의 30대 전환기(28-33세)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사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연령이 대부분(전체 20명 중에서 14명) 이 시기에 속했는데 이 시기 아버지들이 언급한 아버지됨 경험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자녀로 인해 자신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만 아버지란 사실로 인해 자신의 꿈을 조절해 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가족과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정의되고 본인에게도 안정감을 주게 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굉장히 현실적이 된 것 같습니다. 미혼 때 보다는 결혼하고 나서 세상사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생기니까 더 합니다. 저 애는 전적으로 나에게 의지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례 17, 32세 영아기 아버지)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난 음악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대학 땀 보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없을 땀 아내가 이해했는데 이젠 눈치도 보이고 나 스스로도 접을 것은 접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사례 3, 29세 영아기 아버지)

“애가 생기니까 아내와 둘 만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뭐랄까. 이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고, 책임감도 더 강해집니다.” (사례 11, 33세 영아기 아버지)

“나의 딸은 내 아내와 나의 인생에서 전부를 차지하고 그 아이로 인해 우린 더 가까워지고 밀착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는 우리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과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사례 18, 33세, 영아기 아버지)

2) 자기 자신 되기(one's own a man)

레빈슨은 성인전기의 인생구조에서 마무리 하는 중요한 과업을 '자기 자신 되기' 라고 칭하고 있다. 이 시기는 성

인초기 절정기(33세에서 40세)로서 30대 전환기에서 삶의 목표나 선택들을 재 정비한 새로운 인생구조 안에서 가정과 직장에 더욱 개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면에서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중심을 잡고 싶어하며,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설명하는데 본 연구에서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남성들이 자신의 아버지됨에서 '자기 자신 되기'를 추구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 강화나, 자녀에게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태도, 자녀를 사회화 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전수하고자 하는 태도,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좀 더 이상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태도들로 나타난다.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어떤 것에 대해 결정권을 줄때 기쁘죠. 예를 들어 아내가 '아빠오면 물어보자' '아빠에게 사달라고 하자'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떤 위엄도 생기고 자식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기쁘죠...” (사례 9, 41세, 유아기 아버지)

“퇴근하면 애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하고 매달리면 이게 행복이지 싶고 그래요. 언제 저 놈들이 커서... 힘들기는 해도 집에 오면 그득한 것 같고 좋습니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례 5, 41세, 유아기 아버지)

“자녀와 격의 없이 지내는 편이다. 자기가 할 일을 먼저 해 놓고 놀도록 습관화 시키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힘쓰는 편이다.” (사례5, 39세, 아동기 아버지)

“드디어 아들 녀석이 학문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부모로서 책임감이 더 막중합니다.” (사례9, 37세, 아동기 아버지)

“애들이 커가면서 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나에게 의지해 입고 먹고 자고 아무 말없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 아이들이 나를 잘 따라줘서 좋죠.” (사례 7, 40세, 아동기 아버지)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자신을 가두고 막힌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항상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삶의 틀에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

람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례 10, 42세, 아동기 아버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 지는 걸 느낍니다. 가장 우선이 이 애들이 커서 제 구실을 할 때까지 내가 보살펴야 하니깐... 그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야죠.” (사례 11세, 40세 아동기 아버지)

V. 논의

아버지됨(fathering) 경험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에릭슨(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론과 레빈슨(Levinson)의 성인기 발달이론에 근거를 두고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됨 경험은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버지됨에 대한 보상과 대가란 주제는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송지은, 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부모기 전이로 인한 긴장감, 보상감(한경혜, 이정화, 1995), 부모기 전 이후의 긴장감, 만족감과 역할 수행(김희숙, 1996),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조선화, 1998)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남성이 아버지됨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높게 느낀다는 것이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인데 남성이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하는 실재는 부담감이나 시간조절, 일과 가정생활에 대한 우선성 결정 문제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성인기에 획득해야 하는 발달특성들을 획득해 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 남성이 아버지됨으로 인해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감, 자신의 시간 조절에 대한 통제감, 정신적 부담등과 같은 부정적인 지각이나 정서적인 경험을 하지만 결국 한 성인이 살아가는 과정은 긍정적인 경험과 사건들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가는냐에 따라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남성이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경험 이외에도 대가로 지각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들을 통해서도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해 간다고 보여진다. 이는 부모됨의 보상과 대가는 다른 차원으로 서로 상쇄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송지은, 1994)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남성은 아버지됨을 통해 직업 정체성과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서로 결합되어 좀 더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 남성의 일과 부모 역할의 의미를 고찰한 몇몇 연구들(Bielby & Bielby, 1989; Daly, 1996; Ishii-Kuntz, 1993; Simon, 1995)에 의하면 일과 부모 역할이 분리된 어머니의 경우와 달리, 아버지 역할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을 포함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일과 아버지 역할을 분리된 역할로 인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심성적으로는 아버지 역할을 증시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일에 몰입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아버지 본인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버지로서의 중요도를 반영한 결과(서혜영, 1998 재인용)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삶의 양식은 공적 영역인 일이라고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가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일에 대한 정체성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사적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가족역할 특히 아버지란 사실이 남성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성을 심도있게 고찰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남성은 아버지됨을 통해 친밀감 능력이 발달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친밀감은 다른 영역의 인간관계에서도 발현되며, 남성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만족할수록 아버지의 심리적 복지감은 높아진다(서정아, 2002; 조원지, 2000)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볼 때 남성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고 자녀양육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미숙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됨을 보인다. 남성은 아버지됨 경험을 통해 '관계맺음'에 대한 능력이 발달된다.

넷째, 남성은 아버지됨을 통해 성숙한다. 성숙은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해가게 되는데 레빈슨이 제시한 건강한 전환기 통과, '자기 자신 되기', 에릭슨의 생성감 발달, 알포트(Allport)가 제시하는 성숙의 요소들을 토대로 볼 때 아버지됨 경험은 남성에게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특히 알포트는 성숙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즉 한 개인이 자아감이 확장되고,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현실적 지각력이 있고, 기술과 삶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아를 객관화 할 수 있으며, 일관된 삶의 철학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장취숙, 2000 재인용) 이와 같은 속성들을 남성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경험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던 관심 사들이 자신의 주변과 사회로 넓혀짐으로써 자신의 자아감이 확장되며, 연민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획득되는 너그러움과 관용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됨을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 특히 아버지가 됨으로써 가장 크게 변한 부분으로 일과 돈에 대한 생각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자식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태도를 버리게 함으로써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게 해 주며, 소비패턴에 변화를 초래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행함으로써 현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을 가지게 된다. 또한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아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자녀를 양육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동기를 치유할 수 있게 되고 자기를 더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발달해 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생의 철학이나 성숙한 양심, 도덕성의 발달 부분도 아버지가 됨으로써 발달시켜나갔는데 이는 자녀에게 생활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로 표출되고, 일관성 있는 삶의 철학을 가지려하며 본인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영아기에서 아동기까지의 자녀를 둔 남성이 겪는 아버지됨 경험을 통하여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과 심리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아버지됨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탐색해 보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첫째, 에릭슨(Erikson)은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으로 친밀감 발달을 중요한 과업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남성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친밀감을 발달시킬 수 있었고 또한 친밀감 발달을 위하여 중요한 선제 과업인 자아정체감의 확립도 아버지가 됨으로써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인중기의 발달과업인 생산성을 획득하는 것도 아버지가 된 삶을 통해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자신을 느끼고,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통해 획득해 가게 된다.

둘째, 레빈슨(Levinson)의 성인기 발달이론에 근거를 두고 볼 때 성인전기에서 레빈슨은 '자기자신되기'를 중요한 과업으로 말하고 있는데 남성에게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

는 것'은 자신의 인생구조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삶의 전환기에서 남성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성인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는 점을 알게 된다.

셋째, 알포트(Allport)가 제시한 성숙의 요소인 자아확장감,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자아, 정서적 안정감, 현실적 지각, 기술과 삶의 연구과제를 가진 자아, 자아객관화, 일관성 있는 삶의 철학이란 내용들을 남성은 아버지됨 경험을 통하여 획득해 간다.

이상을 종합해서 보면 아버지됨 경험은 여러 측면에서 성인 남성의 개인적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에릭슨(Erikson)이나 레빈슨(Levinson)과 같은 발달심리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인발달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사건임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남성도 아버지됨 경험을 통해서 성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알포트(Allport)가 제시하고 있는 성숙의 요소들을 근거로 하여 남성의 아버지됨 경험들을 통해 변해가는 특성들을 살펴본 바 성숙의 요소들을 충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남성의 삶에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인기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둘째, 남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가족역할 특히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셋째, 실제적인 자녀양육에 남성의 참여를 촉구할 때 남성 자신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인터뷰법에 의한 연구방법의 한계점으로서 C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사례연구들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거나 과장함으로써"(허미화, 1997 재인용) 해석상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이다. 셋째,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을 고려하여 그들의 아버지됨 경험을 분류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지만 분석시에는 아버지됨 경험이 공통된 영역으로 분류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인 아버지됨 경험으로서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면 첫째,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아버지됨 경험이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실제 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양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즉 아버지가 되기 전부터 자녀가 영유아기, 아동기가 된 후의 기간을 설정하여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하거나, 무자녀 가족형태의 남성과 유자녀 가족형태의 남성을 비교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 성인기 발달의 중요한 과업인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생성감의 발달 정도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아버지됨의 경험이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의미성을 좀 더 세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부모됨이 여성과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 보고 그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남성의 성인기 발달을 위하여 아버지됨 경험이 중요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접수 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12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4월 24일

【참 고 문 헌】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 김소영·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과 직업 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7.
- 김희숙(1996). 두 자녀 아버지의 심리적 경험과 아버지 역할 수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영주(1996).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어머니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35-55.
- 노영주(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구**, 서울 : 정민사.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 논집 제 2호**, 1-27.
-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 상호작용 :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29집**, 271-289.
- 이숙현(1996). 남성·여성의 일/가족 갈등. **성곡논총 27(4)**, 367-400.
- 이숙현(1997). 전문직 남성의 일과 가족 : 교수, 의사를 중심으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53-80.
- 서정아(1998).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혜영(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승아(2000). **첫 어머니됨의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지은(1994).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 - 사회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99).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순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보상 및 대가 지각과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나(1993). **남성의 직업만족과 결혼 만족도가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2000). **전생애 발달 심리학 인간발달**. 서울 : 박영사.
- 조선희(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 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원지(2000). **아버지 역할 수행, 직업 역할 수행 및 직업 역할에 의한 아버지 역할 방해정도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7). **인간발달 (개정판)**. 서울: 교문사.
- 한경혜(1997). 아버지상의 변화. **사회문화연구소**.
- 한경혜·이정화(1995). 남성의 직업 역할과 부모기 전이로 인한 긴장감/보상감. **가족학논집**, 155-183.
- 함인희(1997). 현대사회 아버지 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2(여름호)**, 한국가족문화학회.
- 황정해·이정덕(2000). 남성의 아버지됨 경험에 관한 연구 - 취학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5권 2호, 43-65.
- 황정해(2003).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성경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정해·백경임(2004). 예비 아버지의 부성경험에 관한 일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제 25권 5호**, 59-71.
- 황정해·백경임(2005).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의 부성경험에 관한 일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제 26권 6호**, 61-76.
- Barnett, R. C., Marshall, N. L., Pleck, J. H.(1992). Men's Multiple Role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 358-367.
- Cowan P. A. (1988). Becoming a father, In P. Bronstein & C. P. Cowan (Eds.), *Fatherhood today :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13-35. New York, NY : John Wiley & Sons.
- Ellen G. 저. 김세희 외 4인 역(1996).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 부모기의 6단계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Erikson. H 저 윤진 역(1989). *아동기와 사회 : 인간 발달 8단계 이론*.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Hawkins, A. J., & Christiansen, S. L., Sargent, K. P. & Hill, E.J.(1993). Rethink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Journal of Family Issues*, 14, 531-549.
- Greenberger, E. & O'Neil, R.(1993). Spouse, Parent, Worker : Role Commitments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 Psychology*, 29. 181-197.
- Lamb, M. E.(1981). *The Father's Role : Applied Perspective*. New York: Wiley.
- Levinson. D. 저. 김애순 역(1996).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erriam S. 저. 허미화 역(1997).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양서원.
- Shawn L. Christiansen(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identity, and intimacy and development*.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 Smith, S.(1997).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how men come to define themselves as fathers (Parenting)*.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